

국내 사망원인 9위 패혈증... “특별한 진단·예방법 없다”

통계청, 지난해 패혈증 사망자 총 6429명
10만명당 12.5명 “징후 나타나면 신속 검사”
다양한 미생물 감염 원인...항생제 적절 투여

패혈증(sepsis)은 지난해 국내 사망원인 9위로 꼽힐 만큼 위험한 질환이다. 2020년 ‘10대 사망원인’에 처음 포함된 이후 한 계단 더 상승했다.

1일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패혈증 사망자는 총 6429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2.5명이다.

김경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패혈증 치사율이 최대 50%까지 보고될 만큼 무서운 질환”이라면서 “예방법은 따로 없고,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 징후가 나타나면 병원에서 신속하게 검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 호흡곤란·발열...특별한 진단법 없어

패혈증은 감염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체 반응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 기능 부전이 생기는 질환이다.

원인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등 다양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다. 폐렴, 요로감염, 복막염, 뇌수막염, 봉와직염, 심내막염 등 모든 신체에서 나타나는 중증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패혈증을 일으키는 병원균도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폐렴균, 녹농

균, 진균, 클렙시엘라 변형 녹농균 등 다양하다.

초기 증상으로 호흡곤란,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해지면 의식 혼란이 나타나, 혈압 저하에 의한 피부색 변화 등이 보인다.

더 심해지면 저혈압에 빠지고 소변량이 줄면서 쇼크 상태에 이른다. 패혈증에 저혈압이 동반되는 것을 ‘패혈증 쇼크(septic shock)’라고 한다.

패혈증은 아직 특별한 진단법이 없다. 진단이 늦어지는 이유다.

따라서 패혈증이 의심되면 먼저 장기 기능 부전 또는 감염을 시사하는 증상과 징후를 파악한 뒤, 이에 맞는 다양한 검사를 통해 빠르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혈액, 소변, 뇌척수액 배양 검사와 함께 감염이 의심되는 부위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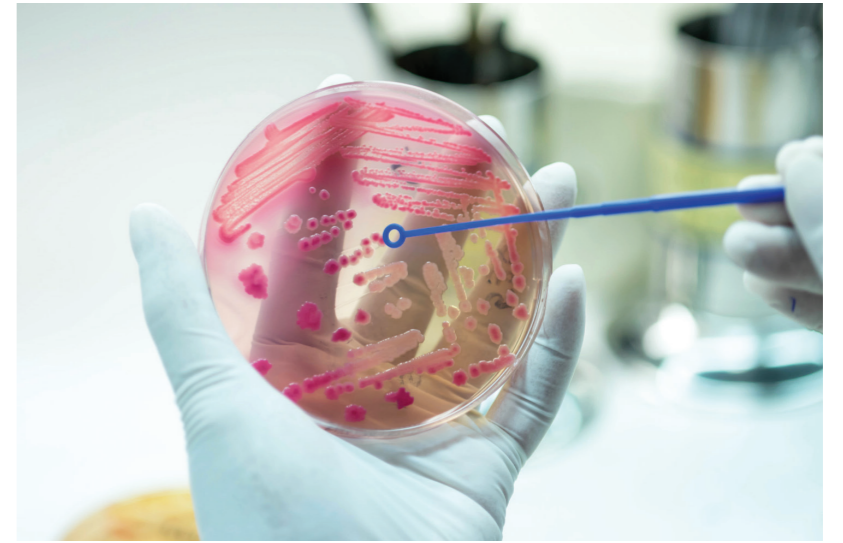
김경훈 교수는 “배양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 전에 빨리 백혈구 수의 증감 또는 ESR(적혈구침강속도), CRP(C-반응성 단백질), PCT(프로칼시토닌) 등 급성 염증성 물질의 증가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기 항생제 투여 시 대부분 완치...‘패혈증 쇼크’ 위험

패혈증은 원인이 되는 감염 병소에 대한 치료가 기본이다. 이를 위해 항생제, 항진균제 등의 적절한 투여가 필요하다.

항생제 치료 기간은 균의 종류, 뇌막염의 합병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1~3주가 필요하다. 내성균이 자라면 격리 치료를 할 수도 있다.

패혈증은 초기에 항생제를 적절하게 투여하고 보전적으로 처치하면 완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뇌막염이 합병된 경우 신경학적 후유증이, 화농성 관절염이 합병되면 관절이나 뼈에 성장 장애가 각각 생길 수 있다.



또 환자의 혈압이나 호흡이 불안정한 경우 집중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한다. 신장이 손상된 경우에는 혈액 투석을, 폐 기능이 떨어져 호흡 부전이 오면 인공호흡기 치료를 각각 시행한다.

환자의 혈압과 순환 상태를 고려해 수액 요법이나 약물치료를 진행하기도 한다. 때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김경훈 교수는 “패혈증 치료는 보전적 치료를 통해 환자가 감염에서 벗어나고 부적절한 반응이 호전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면서 “특히 패혈증 쇼크는 사망률이 더 높기 때문에 다양한 장기 기능 부전에 대한 보전적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 심근경색·뇌졸중 예방수칙 개정



질병관리청이 10개 전문학회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개정추진단과 공동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2011년 개정 후 11년 만이다.

기존 ‘음식은 삼겹살 곁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은 충분히 섭취합니다’는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곁고루, 짜지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콩,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로 바꾸어 구체적인 식습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는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입니다’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약물치료 등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꾸준히 받습니다’로 구체화한다.

기존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로, ‘술은 하루에 한두잔 이하로 줄입니다’는 ‘술은 하루에 한두잔 이하로 줄입니다’로 바뀐다.

뉴시스

하루 37명 극단선택하는데... “지자체 17%만 예방센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활동 실태조사

자살예방 조직 전무한 지자체 11곳
지자체 자살예방예산, 전체의 0.02%

국내에서 하루 평균 36.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예산은 전체의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된 곳도 16.6%에 그쳤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현장에서 전문적인 자살 예방 기능을 담당하는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229개 기초지자체 중 38개(16.6%)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3352명으로 하루 평균 36.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10대~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내·외부 모두에 자살예방 관련 조직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11곳으로 전년도(4곳)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자살예방 전담조직에 투입하는 인력은 전국 평균 7명이었다.

안실련 조사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예산은 총 예산의 0.02% 수준인 약 513억7241만원이었다.

광역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4억2900만원을 편성해 가장 많았고 충남(3억2800만원), 서울(3억1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예산을 가장 적게 편성한 곳은 전남으로 1억1100만원이었다.



자살예방 협의체를 운영하는 기초지자체는 143곳으로 전년 175곳보다 크게 감소했다. 지자체장이 협의회 대표를 맡는 지자체도 지난 2020년 39개에서 32개로 오히려 줄었다.

안실련은 “코로나19 장기간으로 자살자가 늘어나는데 정작 지자체의 자살예방시스템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